

與, 코로나 손실보상 논의 구체화... 소급 적용 놓고 이견

정책 의총 ... 상생연대 3법·경제혁신입법 과제 의견 수렴 '재정 감당 범위' 관건... 오늘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와 관련, 손실보상 논의를 구체화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28일에는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김태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 구제와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도 그렇고 또 신산

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경제혁신입법에 대한 고견도 주시며 고맙겠다"면서 "의원님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상임위별로 2월 국회의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추진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영업제한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공유제도,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전용기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자쟁명'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손실보상법은 감염 재난이 일상화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답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병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피해 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민 의원은 "국가가 집합 금지를 시켰으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제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시적인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떻



"우린 아름다운 경쟁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앞 각오 다진 박영선 ... 청년층 표심 다진 이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보선 후보 경쟁 박, DJ 묘소 참배·주택 공급책 제시
우, 오늘 대학생 조직과 헌혈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상호 의원은 27일 물밑 경쟁을 본격화 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소를 참배하며 각오를 다졌다. 박 전 장관은 DJ 묘역 방명록에 "최고의 대화는 경쟁"이라는 말씀 명심하겠다"고 적었

다. 참배 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대중 대통령님의 등을 보며 간다. 제게 당신의 등은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한결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거론하는 등 경제 행보에 사동을 걸었다.

또 KBS 라디오에서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아파트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민감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호 의원은 강경으로 꼽히는 당내 탄탄한 조직을 다지면서 경선전 준비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우 의원은 오는 28일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들

과 당 대학생 조직이 함께 진행하는 코로나19 극복 헌혈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내주에는 서울시의원들의 '릴레이 온라인 응원'을 통해 세를 과시하고 캠프 분위기를 띄운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에 박 전 장관과 나란히 참석, 기존연설을 통해 서울시장을 이끌어갈 정책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의 후 브리핑에서 "이깨등무 경선을 하겠다는 박영선 후보, 아름다운 경선을 하겠다는 이상호 후보의 정책경쟁 다짐이 공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비주류, 의장 불신임 '돌연' 철회

표결 땀 부결 가능성...민주당 전남도당 '해당 행위' 여부 주시

자당 소속 의장 불신임안 발의 이후 의장단 등 주류 측과 불화 하루 전까지 극한 대결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포함한 비주류 전남도의원들이 27일 돌연 '의안 철회'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의안 철회 의사를 담은 서명서를 소속 의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있다.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한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김한중 의장이 불신임안 제출 동참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했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의안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한 13명의 민주당 의원과 민생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 모두가 의안 철회에 동의했으며, 여기에는 불신임안 대표 발의자로 나선 임종기 의원(민주당)도 포함된다"며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의회에 나오지 않은 일부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철회 서명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비주류 측 의원들의 설명만으론 의안 철회 결정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불신임안 제출을 기점으로 표면화된 비주류측 의장 '흔들기'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6일 새해 첫 본회의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처리 등 이날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던 비주류 측 의원들이 '불신임안 표결을 내달 2일 본회의로 미룬다'는 전남 합의를 뒤로하고, 느닷없이 의안 철회를 택한 것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표결 처리해봤자 부결 될 것을 직감한 비주류 측이 마지못해 의안 철회에 나선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도당이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동참한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가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비주류측 의원들에겐 부담이다.

불신임안 제출 의원들이 사유로 든 광안관광경제자유구역 조항 위헌 선정 부당성, 민간공항 이전 관련 5분 자유발언 제지 등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 K뉴딜 본부장 이광재, 오늘 광주 방문

이용섭 시장과 '광주형 인공지능-그린뉴딜'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 28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 그린뉴딜 추진 상황을 살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나 '광주형 인공지능-그린뉴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뉴딜 추진 계획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등 지원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같은 당 소속의 양향자의

원과의 약속도 계획돼 있다. 이어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강원 원주, 8일 부산, 21일 대전을 방문해 그린뉴딜 추진 상황을 살피었다.

이 의원은 원주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여권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 의원의 이번 광주 방문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권필 기자 ck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